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온실가스 감축

◆ 앨버타 주정부,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안 반대 캠페인 실시(주밴쿠버총영사관)

- 다니엘 스미스(Danielle Smith)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은 10.15(화)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 도입 법안은 '일자리와 투자를 없애는(kill jobs and investment)' 시도라고 비난하면서, 7백만 캐불을 들여 동 법안 도입 반대 캠페인(Scrap the cap)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.
 - 이번 캠페인은 연방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이 캐나다의 에너지 산업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내용으로, TV, 동영상, 신문, SNS 광고 등을 통해 앨버타주, 브리티시 컬럼비아(BC)주, 온타리오주, 뉴브런즈윅주에 홍보될 예정
 - ※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3.12월 원유 가스 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(Regulatory Framework for an Oil and Gas Sector Greenhouse Gas Emissions Cap)을 발표하였으며, 동 규제안을 2025년 법제화할 계획
 - 원유 및 가스 산업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9년 대비 35~38% 감축 목표 제시
 - 동 상한선보다 추가로 배출할 경우 캐나다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탈탄소화 기금(decarbonization fund)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
- 앨버타 주정부는 내년 10월 자유당의 연방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현재 자유당 정부가 내년 총선 이전에 원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배출 규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킬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함.

신재생에너지

◆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, 국내 풍력산업 대책보고서 마련(주독일대사관)

- 로버트 하벡(Robert Habeck) 독일 경제기후보호장관은 10.16(수) 유럽내 풍력터빈 제조 및 공급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개최, △풍력 산업의 의존도 감소, △사이버 보안, △공정한 경쟁 조건, △자금조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, 국내 풍력산업의 성장과 가치창출을 위한 패키지에 합의함.
 - 동 패키지는 유럽 풍력산업과 국내 가치창출을 유지 및 확장하고,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△풍력 터빈의 사이버 보안 강화 △공정한 국제 경쟁조건 보장 △영구자산과 같은 중요한 구성요소에 대한 의존도 감소 △생산증가를 위한 자금 조달 확보 △경쟁 왜곡 발생시 공공재정 투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 등 5가지 주제를 포함
- 하벡 장관은 독일과 유럽은 강력한 풍력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, 에너지 전환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면서, 업계의 경쟁력 유지 및 미래가치 창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본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. 끝.